

風流, 2013 풍물굿패 소리결 정기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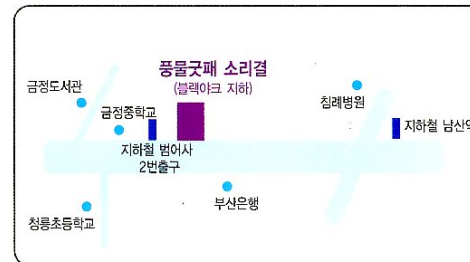
생명을 춤추다

삼도 사물놀이_ 생명, 움트다
장고춤과 설장고
장고와 퍼커션
모듬북
풍물판굿
금회북춤

2013. 10. 23(수) pm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후원 **KT&G** 부산문화재단, **BS** BS금융그룹 협찬 풍년농악기, 디자인미감

부산문화재단의 2013년도 지역문화예술육성기금을 일부 지원받은 공연입니다.
이 공연은 'BS금융그룹 행복의 금융 문화예술·봉사활동 지원사업'의 일부 후원으로 실시됩니다.



2013, 생명을 춤추다

8년 동안 금정산 생명축전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생명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단순히 살아있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온전하게 태어나고, 온전하게 살아가고, 온전하게 죽어가는 것...
온갖 못 생명과 함께 자연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불어오는 바람, 흘러가는 물, 두둥실한 구름, 푸르른 산과 들, 하늘과 땅.....
온갖 생명들이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인간 또한 바람과 물과 구름과 산과 들과 하늘과 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대어 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우리 인간만이 아닌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평등하게 마주하겠지요.

우리의 편리함과 욕망을 위해 희생되어지는 것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동차가 지나가는 도로를 하나 만들더라도 사라져가는 생명들이 얼마나 될까요?
강을 살리겠다고 강바닥을 파헤쳐 콘크리트 공사를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생명이 사
라졌을까요? 조금 더 편리하기 위해서 위험천만한 불명예를 우리가 사는 옆에 그대
로 두는 것이 과연 생명을 위한 것일까요? 전기를 옮기기 위해 산과 들을 파헤치면 그
로 인해 사라지는 삶과 생명들이 얼마나 될지.....

생명이라는 화두가 쉽게 꺼내기 어려울 만큼 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고 몸과 마음을 낮추고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오늘 공연의 모습이 오신 분들께 어떤 모습으로 다가갈 지 짐작이 어렵습니다.
그저 마음을 열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연을 다 보시고 난 후...
시간이 되실때...
가까운 곳으로 야경을 구경하세요.
도시의 불빛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 화려하다, 이쁘다, 아름답다.’
감동이 있으실 겁니다.
‘이 불빛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의 눈물이 흘렀을까?’
이런 마음도 함께 가져보시길 소원합니다.

공연에 함께 해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공연 프로그램

삼도 사물놀이_ 생명, 움트다

장고춤과 설장고

장고와 퍼커션

모듬북 - flying sticks from Frankfurt

풍물판굿

금희복춤

이 공연은 "BS금융그룹 행복한 금융 문화예술·봉사활동 지원사업"의 일부 후원으로 실시됩니다.

올해의 정기공연은 특별한 이들과 함께 합니다.

저희 소리결이 2006년부터 독일에 매년 가면서 함께한 인연입니다.

바로 프랑크푸르트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교포 2세 사물놀이 연주팀 '비봉(Flying sticks)
입니다. 소리결과 만난 후 2008년부터 결성이 되어서 독일 현지에서 사물놀이와 전통
춤, 모듬북 공연을 통해 한국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는 팀입니다. 멤버 모두가
교포 2세이며 각자의 생활을 하면서도 한국 전통예술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
하고 있는 젊은 예술가들입니다.



공연 해설

삼도 사물놀이

인간의 호흡에서부터 파생된 장단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락이 펼쳐지며 악기 저마다의 음색을 가지면서도 서로의 빈곳을 채워 완전한 울림을 만들어낸다. 타악기만으로 천지자연의 변화무쌍함을 표현한 사물의 소리는 해가 뜨고, 바람이 불고, 구름이 흘러가고,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는 자연의 울림을 표현한다.

— 생명, 응트다

시간의 흐름속에 산은 흐르고 있고,
온갖 생명이 기대어 살아가는 대지로 흘러내린다.
온갖 생명의 기운으로 지나간 시간의 흐름속에서 흘러가는 산,
그 속에서 나서 자라고 죽고, 다시 나는 생명의 기운이 춤을 춘다.
모든 생명은 그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설장고와 장고춤

산과 들과 대지를 타고 생명을 품고 흐르는 물의 기운을 장고춤과 설장고의 가락으로 표현한다. 유려하면서도 역동적인 춤사위에 물의 흐름을 담고 섬세한 가락과 장단, 사뻐한 발림에 생명의 기운을 실어 보낸다.

장고와 퍼커션 '채'

뭇 생명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자 가는 기본 마음은 존중과 배려, 그리고 소통...
이겨서 극복하기보다 조화롭게 어울리는 것, 서로 다른 악기와 리듬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흐르는 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장고와 퍼커션의 연주이다.
우리 전통의 칠채장단을 기본으로 변화무쌍한 가락으로 흘러간다.



모듬북 '질풍타고' - flying sticks from Frankfurt

다양한 종류의 음색과 형태를 가진 북으로 변화무쌍한 장단을 연주하며 역동성과 조화로우움을 표현한다.
2분박의 리듬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전통 장단인 텃배기(자진모리)를 응용하여 흥겨움과 재미를 더한 모듬북 작품이다.
특히 모듬북을 연주하는 이들이 독일교포 2세대들이며,
한국의 전통장단을 통해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모습에 더한 감동이 있다.

풍물판굿과 금회복춤

뭇 생명과 조화를 이룬 사람들이 펼치는 잔치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의 삶은 풍물굿판과 함께 이어져왔다.
자연을 극복하기보다 자연에 순응하며 더불어 살아가고자 했던 삶의 방식,
그것이 우리 선조들이 가진 삶의 모습이었고
그 삶의 방식을 대대로 전해주고 가르치고 이어준 것이 바로 풍물굿이다.
인간이 뭇 생명을 받들고 존중할 때,
그 모습은 조화로운 평등, 질서있는 자유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놀이인진

풍물굿패 소리결



김연수, 유길현, 구지연, 이은규, 이재철, 김정훈, 백혜진, 서창원, 최형석, 박상문, 정연실, 장재훈 (왼쪽부터)

특별출연



배관호 (금회북춤 기능보유자)
유대상 (김병섭류 설장구 이수자)
김진식 (경북도립국악단원)



Bibong from Frankfurt
Melanie Fuchs,
Natalie Fuchs,
박현정



오미화 (재독교포)



무용단 미르_ 안무-변지연, 춤- 김지혜, 심포리, 윤혜선, 박채연, 문채영, 이솔지, 김가현, 송지아

도움주신 분들

(사)부산민예총, 달성사12차 진국보존회, 무용단 미르, 배관호 예술공방 art factory, 디자인미감, 풍년국악기, 부산대학교단대풍물패연합, 이정수, 정귀향, 이옥희

풍물굿패 소리결

- 풍물굿패 소리결은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전통예술 공연 단체로 2000년 결성되었다.
- 풍물굿과 사물놀이를 기본 바탕으로 전통예술에 대한 올바른 전승과 대중화를 위해 작품활동과 공연을 해왔다.
- 2002년 부산 아시아드 경기에서 통일유원단을 결성하여 남북의 선수들을 응원하는 공연과 퍼레이드를 하였고
- 2003년에는 일본 전국 순회공연을 하였다.
- 2004년, 2005년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이쿠노 통일마당에 초청 되어 공연을 하였다.
- 2006년부터 '독일교포를 위한 전통예술 순회공연 및 워크숍' 및 순회공연을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독일 현지 교포2세 사물놀이 팀 '비봉(flying sticks)' 과 현재까지 인연을 맺고 있다.
- 2009년에 프랑스 파리 '뤼마니떼' 축제에 한국공연단으로 참가 하였으며 이외에 각 단원들이 대만, 일본, 중국 등지로 활발한 해외공연을 해왔다.
- 2007년과 2010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전국 소외지역 문화순회공연을 주관하였다. 부산지역에서 매년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복지관과 노인정 등을 찾아 전통예술 공연을 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매년 연말마다 '신명난 송년회' 라는 타이틀로 정기공연을 하였다. 2012년에 국립부산국악원의 화요공감무대와 토요일신명무대에 초청되어 풍물굿과 사물놀이, 금회북춤 공연을 하였다. 전통예술의 올곧은 전승을 위하여 매년 여름에는 상모전수학교를 12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경상도 외북춤의 정수인 금회북춤 캠프를 2회째 진행하고 있다. 달성다사 12차 진국보존회에 소속되어 전승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풍물굿패 소리결은 우리민족의 전통예술이 올곧은 전승과 폭넓은 대중화를 위해 끊임없이 역량을 연미하고 작품창작과 공연을 하고 있다.

풍물굿패 소리결 정기후원 안내

- ▶ **자동이체신청** 은행에서 아래의 계좌로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월 1만원이상)
부산은행 059-01-027503-9 풍물굿패소리결 김인수
신한은행 110-124-718207 풍물굿패소리결 김인수
- ▶ **CMS 신청** 후원하실 분 명의의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시면 은행에 직접 찾아가는 불편이 없이 메일 계좌에서 자동출금됩니다.(월 1만원이상)
(*출금시 전국대학민주동문화 이름으로 출금됩니다.)
- ▶ **후원회원** 등록시 꼭 전화로 성함,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공연과 기획공연 팸플렛과 초대권을 보내드리며, 소리결의 공연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 **연락처** 011-9518-5569

